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5
영적 전쟁

성경: 엡 6:10-20, 마 6:10, 12:22-29, 시 110:3 상

[엡 6:10-2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¹¹⁾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¹²⁾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¹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¹⁵⁾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¹⁶⁾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⁷⁾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¹⁹⁾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²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마 6: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12:22-29]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분께서 고쳐 주시어, 그가 말하며 보게 되니, ⁽²³⁾ 무리가 다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²⁴⁾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²⁵⁾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서로 싸워 갈라지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입니다. ⁽²⁶⁾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²⁷⁾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²⁸⁾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²⁹⁾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시 110: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 I.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 엡 6:12.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 A. 6 장 10 절부터 20 절까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와 마귀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전투원이라는 것을 본다.

[엡 6:10-2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¹¹⁾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¹²⁾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¹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¹⁵⁾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¹⁶⁾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⁷⁾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¹⁹⁾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²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 B. 11 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계략을 말하고 12 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엡 6:11-12]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¹²⁾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 C. ‘피와 살’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D.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어야 한다.
E. 이 어둠’은 오늘날의 세상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어두운 통치 아래 있고, 마귀는 악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린다 — 롬 13:12, 요일 2:11.

[롬 13:12]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요일 2:11]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F.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탄이 세운 군주들이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대기는 ‘이 어둠’이 되었다.

- G.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1.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은 공중을 가리킨다(엡 2:2).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공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삼층천에 앉아 있다(엡 2:6)).

[엡 2:2] 그때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2.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II.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신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엡 6:10-2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¹¹⁾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¹²⁾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¹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¹⁵⁾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¹⁶⁾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⁷⁾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¹⁹⁾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²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A.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새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1.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고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 창 1:26.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B.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 엡 1:5, 9, 11, 마 6:10, 7:21, 사 14:12-14.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엡 1: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엡 1: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 6: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7: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사 14:12-14]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¹³⁾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 내 보좌를 높이리라. /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1. 새사람인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계 4:11.

[계 4: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 마 6:10, 겔 28:12-19, 사 14:12-14.

[마 6: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겔 28:12-19] “사람의 아들이라, 두로의 왕을 위하여 애가 하나를 지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전하여라. ‘지혜가 가득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너는 온전함 그 자체였다.’⁽¹³⁾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다. 온갖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귀감람석과 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비취옥과 금이다. 정교하게 만든 네 손복과 피리가 네가 창조된 날에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¹⁴⁾ 너는 궤를 덮는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정녕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¹⁵⁾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이 온전하였는데 결국 네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¹⁶⁾ 네 교역이 변창하자 네 안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지었다. 너 덮는 그룹아,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부터 사라지게 하였다.’⁽¹⁷⁾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지고, 네 광채 때문에 네 지혜를 부패시키니, 내가 너를 땅으로 내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¹⁸⁾ 너는 불의한 교역을 하는 가운데 죄악을 많이 저질러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기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였다. 그것이 너를 소멸시켰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앞에서 너를 땅의 재가 되게 하였다.’⁽¹⁹⁾ 백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이들이 너를 보고 놀랐다. 네가 공포거리가 되어 영영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사 14:12-14]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¹³⁾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 내 보좌를 높이리라. /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¹⁴⁾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3.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 엡 6:13.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 엡 6:12.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D.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 골 1:13, 단 10:20.

[골 1: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단 10:20]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그대에게 온 줄 아십니까?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갈 것인데, 내가 가고 나면 야완의 군주가 곧 올 것입니다.

E.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 새사람의 문제이다 — 엡 1:22-23, 4:24, 6:13.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함께 이 단체적인 전투원을 구성한다.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

F.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 즉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서 있을 수 있다 — 엡 6:11, 13-14.

[엡 6: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엡 6:13-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1. 그리스도와 함께 앓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엡 2:6, 4:1, 5:2, 8, 6:13-14.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엡 4: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엡 6:13-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2. 원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III.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1:15, 12:10.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12: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A.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 마 12:26, 28, 계 12:11.

[마 12: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 B.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 마 12:22-29.

[마 12:22-29]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분께서 고쳐 주시어, 그가 말하며 보게 되니, ⁽²³⁾ 무리가 다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²⁴⁾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²⁵⁾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서로 싸워 갈라지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입니다. ⁽²⁶⁾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²⁷⁾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²⁸⁾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²⁹⁾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 C. 마귀가 쫓겨난 곳마다,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된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 마 12:28.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 D.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전쟁터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야 한다 — 엠 6:10.

[엠 6: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 IV.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원수들을 /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시 110:1-3 상.

[시 110:1-3]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원수들을 /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²⁾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³⁾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 A.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 제물, 곧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 레 22:18, 신 12:6.

[레 22:18]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는 체류자든 누구든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원 제물이든 자원 제물이든,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신 12: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때나 양 때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B.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다 — 시 110:3 상.

[시 110: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